

사순절 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IN LENT

주후 2021년 3월 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76 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새 45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0 번 시편(Psalm) 2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골로새서 (Colossians) 3:12-17	이수진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7) – 단순한 삶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by Simply Life)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당부하셨지만,
우리는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을 자꾸만 붙잡으려 했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십자가를 도중에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그릇된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좇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눅 9:23,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글개역 골 3:17)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NIV Colossians 3:1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7 (주일)	3/8 (월)	3/9 (화)	3/10 (수)	3/11 (목)	3/12 (금)	3/13 (토)
본문	출18	출19	출20	출21	출22	출23	출24
	눅21	눅22	눅23	눅24	요1	요2	요3
	욥30	욥37	욥38	욥39	욥40	욥41	욥42
	고후6	고후7	고후8	고후9	고후10	고후11	고후12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3/10 오후7:30)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고후 5:6-12)
토요 새벽기도회 (3/13 오전6:30)	“여호와의 소리가” (시 29:1-11)

지난 주일(2/28)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6) – 선교적 삶으로” (빌 4:1-9)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힐 수 없으며, 비록 그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를 위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는 1)첫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빌42)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2)둘째,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빌45)으로 이어져야 하며, 3)셋째,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함(빌49)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한 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삶으로 행할 때 (일상으로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